『기독교사회윤리』 제44집
(2019) 399~433

# 협력과 호혜의 윤리* **

## - 공유의 비극을 넘어 협력과 호혜의 경제공동체에로

**이종원**(계명대학교, 조교수)

I. 들어가는 말

II. 딜레마에 빠진 이기주의
1. 이기적 유전자
2. 공유지의 비극과 인클로저 운동
3. 죄수의 딜레마

III. 협력의 윤리
1. 협력의 메커니즘
2. 협력의 원리
3. 협력의 미늘

IV. 호혜의 윤리
1.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2. 호혜와 선물의 경제
3. 공유가치창출

V. 협력과 호혜의 경제 공동체

VI. 나가는 말 - 호혜와 협력, 그리고 우분투 정신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9.44.14

---

* 본 연구는 2018년도 계명대학교의 비사연구비로 조성된 연구임.
** 이 논문은 2019년 6월 17일 한국성서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였음.

www.kci.go.kr

## • ABSTRACT •

# The Ethics of Cooperation and Reciprocity: Beyo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toward the economic community of the cooperation and reciprocity

Lee, Jong-won (Assistant Prof.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ethics of cooperation and reciprocity are the best solution as the altruistic economic movement, even though the egoism is partially rampant in society with extreme competitions under the capitalistic economic system. For this goal,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excellency of the cooperation and reciprocity as the alternative solution for the tragedy of the commons and the prisoner's dilemma. The ethics of cooperation and reciprocity are magnified, because that is deeply related with the crisis of this era. Nowadays humankind are facing with many complex and difficult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global warming, the fear of nuclear war, exhaustion of resources, poverty and starvation compared to tragedy of the commons. If collective egoism works, these problems would become more complicated in state of anarchy or degrading to the prisoner's dilemma. Also, this study explores the alternative economic movements on the basis of the creativity, imagination, enthusiasm, and pioneer spirit. Lastly, it suggests that church needs to participate in the social economic movement positively.

**Key words:** Cooperation, Reciprocity, Tragedy of the Commons, Prisoner's Dilemma, Enclosure, Creating Shared Value

www.kci.go.kr

## I. 들어가는 말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효과적으로 자극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자본주의 경제는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통해 승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개인 간, 집단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게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하지만 이기적 본성을 자극하여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은 성과 못지않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극심한 경쟁에서 우월한 조건을 지닌 승자만이 독식하는 체제 하에서 사회적 약자들은 경쟁에서 뒤처져 삶의 극단으로 내몰리게 된다. 피터 싱어는 세계화에 편승한 자본주의가 불평등을 심화시키는데, 소수가 부를 독점하는 한편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 시장경제의 증상이라고 지적하였다.[1)]

불평등으로 인한 양극화는 제레미 리프킨이 경고한 '노동의 종말'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전문기술이 세분화되고 노동시장에서 분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는 성장하지만, 고용과 일자리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기계화와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컴퓨터나 자동화 기계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해버림으로 구조적 대량실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삶은 점점 메말라가고, 삶의 질 또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

1) Peter Singer, 이재경 옮김, 『효율적 이타주의자』 (파주: 21세기북스, 2016) 73. 피터 싱어는 부의 불평등이 확대되는 증거로, 미국 상위 1%에 속하는 부자가 1993년에서 2007년 사이 미국 경제의 일인당 실질 성장의 50%를 차지했지만 2005년 기준으로 하루 2.5달러로 살아가는 전체 인류의 절반이나 된다고 지적하였다. Peter Singer & Jon Elster, 유강은 옮김, 『기빙웰』 (서울: 이매진, 2017), 13.

www.kci.go.kr

토마스 홉스에 따르면,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의 삶은 외롭고 역겹고 거칠고 궁핍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 상태(state of nature)의 인간들은 서로 경쟁하는 이기적인 존재로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였다. 이른바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던 시대였다. 줄어드는 일자리와 심화되는 경쟁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좀 더 이기적이며 비협력적으로 유인하는 외부 환경적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에서 '헬조선'이라는 청년 일자리 부족현상으로 나타나 사회갈등과 분열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을 부추기고 승자만이 독식하는 자유시장적 경제 질서는 효과적인 경제 체계라고 볼 수 없다. 최근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공존과 협력, 호혜와 상생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경제 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운동들은 경쟁을 조장하는 이기적 본성 보다는 호혜와 협력과 같은 이타적 성향에 기반을 둔 경제운동이라 할 수 있다.

협력과 호혜의 윤리가 부각되는 이유는 현 시대가 직면한 위기 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유지의 비극으로 비유되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자원 고갈이나 군비경쟁으로 인한 핵 확산, 난민 문제 등과 같은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작동하게 되면 무정부 상태가 되거나 죄수의 딜레마로 빠져들어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소고에서는 신자유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만연된 이기주의적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협력과 호혜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기주의를 합리화하는 유전자 결정론과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하고, 공유지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

www.kci.go.kr

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협력과 호혜가 지닌 도덕적 가치의 탁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호혜와 협력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 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 딜레마에 빠진 이기주의

### 1.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는『이기적 유전자』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유전자에 의해 창조된 '생존 기계'이며, 자기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과 모든 동물은 "유전자에 의해 프로그램된 대로 먹고, 살고, 사랑하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도킨스에 따르면, 유전자는 수많은 사본 형태로 존재하는 불멸의 '자기 복제자'로서 여러 세대에 존속하는 유전 단위이자 자연선택의 기본 단위이다. 유전자는 자연선택에 성공하는 단위가 가져야 할 이기적인 특성을 지닌다. 도킨스는 자연 선택에 성공하는 유전자 단위가 지녀야 하는 특성으로서 장수, 다산성, 복제의 정확도를 제시하면서 이러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실체는 종이나 집단,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임을 강조하였다.[2] 자연선택이 작용할 만큼 수없이 많은 세대에 걸쳐 유전 정보를 충실히 후대에 물려주는 실체는 유전자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 수준에서 볼 때, '이타주의는 열세하고 이기주의는 우세하다는 것'이다.

도킨스는 생물의 다양성을 유전자의 표현형으로, 생명 개체 간의 협력을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증식에 이롭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안정된 전략(evolutionarily stable strategy)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그는 자연선택의

2) Richard Dawkins, 홍영남 · 이상임 옮김,『이기적 유전자』(서울: 을유문화사, 2011), 88.

www.kci.go.kr

기본 단위는 종도 그룹도 개체도 아닌 유전자이며, 우리는 유전자의 기계로 만들어져 밈(Meme)의 기계로 자라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유전적 진화와 인간의 문화적 변화 과정을 밈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자기 복제자 개념으로 연결시켰다. 밈의 예로서 "노래, 언어, 의복과 음식의 유행, 의식과 관습, 예술과 건축, 기술과 공학" 등을 제시하였다.[3] 밈이라고 하는 문화적 유전자 역시 자연선택의 결과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문화도 결국 유전자의 확장된 표현형인 것이다.

도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자연계에서 이타적인 경향을 보이는 개체나 집단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이타주의적 행동 또한 유전자의 이기주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았다. 외견상 혈연 이타주의도 유전자의 이기주의가 개체 이타주의로 그 모습을 바꾸었기 때문이며, 이타적 행위 배후에는 이기적 유전자가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즉 선한 행위를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행위자 자신에게 즐거움(쾌락)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행위자의 이익을 추구한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외견상 이타적으로 보이는 행위도 면밀히 조사해 보면, 위장된 이기성을 발견하게 된다. 새들이 부리로 서로의 깃털을 손질해 주는 아름다운 미덕 배후에는 감정이나 의지도 없는 이기적인 유전자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생물학적 본성에 이타주의가 있다고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4]

그런데 도킨스는 유전자를 오직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기적 존재로 그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시 된다. 도킨스의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은 유전자의 이기성에 의해 프로그램된 대로 행동하는 이들로 인해 비정한 경쟁과 속임수로 가득 찬 곳이 될 것이기 때문

3) 같은 책, 320-325.
4) 같은 책, 243.

www.kci.go.kr

이다. 이러한 도킨스의 주장에는 인간의 본성은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는 유전자 결정론과 인간의 행동 또한 생물학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생물학적 결정론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유전자 결정론이나 생물학적 결정론은 극단적인 환원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다.

유전자만으로는 인간의 감정이나 의식을 포함한 인격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생명이란 하나의 과정이며, 복잡한 상호작용의 그물망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명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유전자와 세포, 조직, 기관, 신체 그리고 유기체를 둘러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까지 포함하는 유기적이고 통전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공유지의 비극과 인클로저 운동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우리가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정육점이나 술집, 빵집 주인들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에 대한 그들의 관심 때문이다. 우리가 호소하는 바는 그들의 인류애가 아니라 그들의 이기심이다."라고 하였다.[5] 애덤 스미스는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利己的)이며, 행동의 근본 동기는 이기심에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기적인 본능이 타인에 대한 배려나 박애, 희생정신 같은 이타적인 본능보다 강력하며, 각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지속적인 동기부여의 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기심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이기심이 만연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경쟁에 노출될 경우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유지의 비극이다.

---

5) Adam Smith, 최호진 · 정해동 옮김, 『국부론』 (서울: 범우사, 1993), 31-32.

www.kci.go.kr

공유재(common goods, commons)나 공유자원(CPRs, common-pool resources)은 공기나 물, 자연환경, 야생동물 보호구역, 천연자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공유하는 소중한 자산이다. 공유자원은 비배제성(non-exclusion)과 편익감소성(subtractibility)이라는 특징을 지닌다.[6] 비배제성이란 한 사람이 공유자원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사용을 막을 수 없거나 이를 막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또한 편익감소성이란 사용 빈도에 따라 자원의 총량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모두가 함께 공유하면서 사용하기에 마구잡이로 사용할 가능성(혼잡 효과)이 많으며, 아껴 사용하기 보다는 헤프게 사용할 가능성(남용)이 많다.

공유지는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을 지니기에 오·남용의 가능성이 많으며 심지어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될 수도 있다. 무임승차자는 편익의 산출을 위해 비용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편익만을 향유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이다. 공동의 노력으로 획득한 성과를 누리는 과정에서 무임승차를 규제하기 어려울 때 개인은 수고와 희생 대신에 무임으로 편승하려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공유지는 사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인해 잠식당하면서, 공동체 정신도 함께 붕괴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인클로저(enclosure) 운동이다. 각자가 투자한 노동력에 따라 그 자원에 대한 사적 자격을 갖는다고 주장한 존 로크의 노동가치론은 개인의 재산권, 즉 시장 인클로저에 대한 도덕적 논리와 법적 근거가 되었다.[7] 어떤 땅을 찾아 개간하느라 노동을 들였다

6) 강은숙·김종석,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

7) David Boiler, 배수현 옮김,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서울: 갈무리, 2015), 157. 존 로크는 신이 인류에게 공동으로 대지를 주었지만, 일정 정도의 사유재산은 인간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고 믿었다. 그는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는 사유재산의 한계를 두 가지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사람들이 노동을 통하여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많아서는 안 되며, 둘째, 다른 사람들과 공유지를 위해 충분할 만큼 남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Jay Walljasper, 박현주 옮김, 『우리가

www.kci.go.kr

는 이유만으로 그 땅을 소유할 자격을 얻는다면 아직 개발되지 않는 땅은 먼저 개간하는 사람의 소유가 된다. 빈 토지(res nullius)나 황무지는 먼저 개간하여 가치 있게 만드는 이의 노동과 재능이 개입할 때만 가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에는 그곳에서 이미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원주민이나 자연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황무지나 자연은 그저 사적으로 소유되어 이용될 수 있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왕과 귀족, 지주들은 이전까지 서민들(commoner)에 의해 자유롭게 이용되던 목초지, 삼림, 야생동물구역, 물 등을 사유지로 전환시켰는데, 때로는 의회의 도움을 받아 토지를 몰수하거나 무력으로 빼앗기도 했다.[8] 그리하여 1600년대 후반에서 1800년대 중반까지 150년 동안 영국 전체 공유지의 7분의 1이 분할되어 사유화되었다.[9] 사유지로로 전환시킨 구역에는 울타리나 담을 세워 수렵을 금지시키고 출입조차 금지시켰다. 그 결과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는데, 가난으로 피폐해진 소작농과 평민들은 도시로 흘러들어가 산업 노동자가 되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였다.

영국에서 시작된 인클로저 운동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1862년 홈스테드 법(Homestead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미국 서부의 미개발 지역을 개척하기 위한 목적으로 백인 정착민들에게 공유지를 사유화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승인한 법이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해 수많은 원주민들이 피해를 입었고,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물이나 광물 같은 천연자원을 독차지하기 위해 교묘하게 악용되기도 했다.[10]

---

공유하는 모든 것』 (서울: 검둥소, 2013), 111.

8) David Boiler,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74.

9) 같은 책, 77.

10) 홈스테드 법(자영 농지법)은 한 구역 당 160에이커씩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1862년에서 1986년 동안 160만 명의 자영농이 불하받았으며, 이들의 면적은 총 2억 7천 에이커로서, 미국 총 면적의 10%에 달한다.

www.kci.go.kr

데이비드 볼리어(David Bollier)는 공유자원을 특정 소유자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를 특수 형태의 절도 행위로 보았다.[11] 경제성의 논리로 보면 공유지를 사유지로 귀속시켜 토지를 개발하고 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은 토지의 생산성을 높임과 동시에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하지만 공유지의 사유화는 사회 불평등을 야기하여 공동체 정신을 훼손시키고, 급기야는 생태 균형을 무너뜨리는 토지수탈 행위가 된다.[12]

인클로저 운동은 토지에서 시작되었지만 점차 대양과 지구의 환경까지 상품화하면서 확산되고 있다. 토양과 생물 다양성의 감소, 전 지구적 기후 변화, 식량 주권의 감소, 훼손되는 자연 생태계 등은 인클로저의 확장으로 인해 초래된 결과들이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인클로저가 진행되면서 노동, 토지, 화폐가 상품으로 재정의되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된 것을 비판하면서 이를 허구적 상품(fictional commodities)이라고 불렀다.[13] 인간과 모든 동식물이 공존하는 자연 생태계는 대체 가능한 재화와 같은 단위로 쪼개질 수 없기에 결코 상품화되어서는 안 되는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거짓 상품으로 변질시켰다는 지적이다.

### 3.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게임은 1950년 미국 군사연구소인 랜드연구소의 수학자

11) David Boiler,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72.

12) 토지의 사유화는 지대추구(rent-seeking) 조장으로 성장을 더디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조지프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는 자원 부국이 자원 빈국 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이유로 지대추구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나라 중에는 자원 독점을 통해 부를 누리려고 한 결과, 부정부패와 자원 낭비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오영호, 『신뢰경제의 귀환』 (서울: 메디치, 2013), 102.

13) 칼 폴라니에 따르면,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이름이며, 토지란 자연의 다른 이름이며, 화폐는 구매력의 징표일 뿐이기에 이들 중 그 어떤 것도 판매를 위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들을 상품으로 묘사하는 것은 전적으로 허구라는 것이다. Karl Polanyi,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09), 243.

www.kci.go.kr

메릴 플러드(M. Flood)와 멜빈 드레셔(M. Dresher)가 고안한 비 협동 게임(noncooperative game)이다.

| | 죄수 B<br>협력(묵비권 행사) | 죄수 B<br>배신(상대의 범죄 폭로) |
|---|---|---|
| 죄수 A<br>협력(묵비권 행사) | 죄수 A: 2년<br>죄수 B: 2년 | 죄수 A: 5년<br>죄수 B: 풀려남 |
| 죄수 A<br>배신(상대의 범죄 폭로) | 죄수 A: 풀려남<br>죄수 B: 5년 | 죄수 A: 4년<br>죄수 B: 4년 |

죄수 A와 B는 서로 의사소통이 차단된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만약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범죄 사실을 은폐하면 둘은 증거불충분으로 가벼운 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죄수들에게 상대방의 범죄 사실을 밝히고 자백하면 풀어주겠다고 제안한다.(배신의 유혹) 이때 둘은 동료를 배신할지 서로를 믿고 협력할지 고민하게 된다.

만약 동료의 혐의를 밝히고 자백하면 동료는 가장 무거운 5년형을 받는 대신 자신은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다. 단 동료가 범죄 사실을 숨기고 은폐했을 때(동료의 협력)만 그렇고, 만약 동료 또한 자신처럼 상대의 범죄를 밝히고 자백한다면(동료의 배신) 두 사람 모두 상호배신이 되어 무거운 형(4년 형)을 선고받게 된다. 자신이 협력하고 동료가 배신할 경우 동료는 풀려나게 되고, 자신은 멍청한 짓을 한 대가로 가장 무거운 5년형을 받게 된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협력과 배신 사이를 고민하다가 얼간이가 아닌 이상, 배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하여 배신을 선택하게 된다. 결국 양쪽 모두 상호 배신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를 내가 받을 이득(보상)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4]

www.kci.go.kr

| | 상대방 | | |
|---|---|---|---|
| 나 | | 협력 | 배신 |
| | 협력 | Reward<br>**상호 협력**에 따른 보상 | Stupid(**최악**의 선택)<br>배신당하여 **봉으로 뜯김** |
| | 배신 | Temptation(최상의 선택)<br>배반으로 **최상의 이득을 챙김** | Penalty<br>**상호 배반**에 따른 큰 손해 |

죄수의 딜레마가 지닌 첫째 특징은 네 경우에서의 보수의 순서이다. 보수의 순서에서 가장 우월한 전략(dominant strategy)은 상대가 협력할 때 내가 배반하는 것이다. 반면 최악의 선택은 상대가 배반할 때 내가 협력하여 봉으로 뜯기는 것이다. 그리고 상호협력에 대한 보상은 상호배반에 대한 처벌 보다 더 낫다. 그런데 위의 네 가지 중에서 배신의 유혹이 크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수의 크기를 비교하면 Temptation(나의 배반 & 상대의 협력) 〉 Reward(상호 협력) 〉 Penalty(상호 배반) 〉 Stupid(나의 협력 & 상대의 배반)의 순서가 된다. T가 R 보다 이득이 크기에 상대가 협력한다면 나는 배신하는 것이 낫다. 또한 P(상호배반)가 S(봉으로 뜯김)보다 이득이 되기에 만일 상대가 배신한다면 나도 배신하는 것이 낫다. 또한 T(배신)가 S(봉으로 뜯김) 보다 훨씬 이득이 되기에 협력자와 배신자가 한 쌍으로 묶였을 때 내가 배신을 택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배신의 유혹들이 없다면 협력은 가장 유리한 선택이 될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가 지닌 두 번째 특징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상대를 이용하고 이용당해도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기적인 두 사람이 '딱 한 번'만 게임을 한다면 둘 다 자신에게 유리한 배반을 선택할 것이고, 결국 서로 협력을 선택했을 때보다 낮은 점수를 얻게 된다. 여러

14) Richard Dawkins,『이기적 유전자』341 참고.

www.kci.go.kr

번 게임을 하게 되더라도 게임의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고 이 사실을 참가자들이 알고 있다면, 서로 협력할 동기가 없어진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마지막 게임일 때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15] 더 이상 게임이 없으므로 상대방 눈치를 보지 않고 배반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죄수의 딜레마는 두 사람이 하는 게임이지만 참여자의 수가 많아지면 공공재 게임이 된다. 한 사람이나 집단이 자원을 남용하면 다른 이들이나 집단이 누려야 할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다. 동료가 이러한 배신에 보복하는 방식은 그들 역시 배신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공유지의 비극으로 치닫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나 죄수의 딜레마는 협력과 신뢰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외부환경적 요인이며,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한 비극에서 벗어날 수 없다.

## III. 협력의 윤리

우리는 제로섬 게임에 익숙해져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상황에서 상호협력이 상호배반 보다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될 때가 더 많다. 탁월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내는 비결은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서 협력을 유도하여 함께 상생하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는 이기심 때문이든 상대에게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든 배신을 선택할 강력한 유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많은 실험들에서 상당히 많은 참가자들이 배신이 아닌 협력을 선호하여 선택하였다.[16] 양자가 모두 협력할 경우 최상의 보상은 아니지만 차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보수의 순서에서 두 번째),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

15) Robert Axelrod, 이경식 옮김, 『협력의 진화』 (서울: 시스테마, 2012), 33.

16) Samuel Bowles, & Herbert Gintis, 최정규 외 옮김, 『협력하는 종』 (서울: 한국경제신문, 2016), 49.

www.kci.go.kr

로 희생되는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 있으며 상호배신의 딜레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 1. 협력의 메커니즘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로 인해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 본성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오해를 낳고, 이기적 행위에 대한 합리화의 근거로 작용할 위험소지가 있다. 하지만 도킨스는 '자연 선택에 의해 복제성공도가 최대화되는 실체는 유전자'라는 낯선 개념을 일반 대중들에게 쉽게 이해시키려는 의도에서 유전자를 이기적이라고 표현하였을 뿐이다.[17] 이는 과학 언어를 의인화하여 사용한 데에서 비롯된 오해이다.

요아힘 바우어(Joachim Bauer)는 투쟁이나 생존경쟁과 같은 개념들은 경제학에서 파생되어 생물학에 적용된 인위적인 개념일 뿐이며, 자연의 투쟁이라는 다윈적 모델이 지나치게 단편화된 결과라고 지적하였다.[18] 그는 이기성 보다는 협력 메커니즘이 모든 생명체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면서 세포 하나하나는 유전 물질, 유전 물질을 둘러싸고 있는 단백질, 세포소기관, 세포막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작동할 수 없기에 생물학의 중심에는 상호관계와 협력이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였다.[19]

프란스 드 발(Frans de Waal)은 영장류의 사회적 행동 연구를 통해 도덕성이 무리 간 상호작용에서 갈등 해소와 협동과 나눔을 위해 진화한

17) 도킨스는 2006년판 서문에서 '이기적 유전자'라는 제목 보다는 '불멸의 유전자'라는 제목이 더 나았으리라고 언급하였다. 불멸의 유전자는 오랜 세월에 걸친 자연선택의 단위는 오직 유전자뿐이라는 저자의 원래 의도를 더 잘 전달하는 은유적 표현이다. 전중환, "진화생물학의 은유 – '이기적인 유전자'와 '스팬드럴'을 중심으로,"『대동철학』 54집 2011년 3월, 127.

18) Joachim Bauer, 이미옥 옮김,『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원칙』(서울: 에코리브르, 2007), 17.

19) 같은 책, 108-109.

www.kci.go.kr

역량 중 하나라고 하였다.[20] 침팬지는 무리를 지어 영역 순찰에 나서기도 하고 일부는 협력하여 사냥하기도 한다. 또한 벌과 흰개미 등 사회적 성향을 갖는 곤충들은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대규모 집단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고 있다.[21]

크로포트킨(Petr Kropotkin) 또한 상호 부조(mutual aid)는 자연의 법칙이며 진화의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22] 동물들은 상호부조와 상호지지(mutual support)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고 보다 나은 생존 상태를 만들어 간다. 유전자가 협력해서 염색체를 만들고, 염색체는 협력해서 게놈(genome)이 되고, 게놈은 협력해서 새로운 세포를 형성하고, 세포가 협력해서 복합 세포를 만들고, 복합 세포가 협력해서 개체를 만들고, 개체가 협력해서 군체를 이룬다.[23] 공생은 생명체들이 지닌 창조성의 근원이다. 공생자들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공생 관계를 이룸으로써 새로운 조직과 기관이 생겨나고, 새로운 생물과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것을 '공생 발생(symbiogenesis)'이라고 한다.[24]

상호부조와 협력이 이기성 보다는 더 본질적이라는 해석이다. 상호부조와 협력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좀 더 효율적인 삶의 방식이다. 집단을 이루며 살아가는 군집 생활을 선호하며 친사회적인 성향을 보이는 인간에게 협력과 이타적인 본성은 공동체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장 교환의 경우 협력은 공생(mutualism)으로 나타나 행위자와 타인 모두에게 순이득을 발생시킨다. 기업 역시 기업의 공동목표와 이익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할

20) Peter Singer, 『효율적 이타주의자』, 106.
21) S. Bowles & H. Gintis, 『협력하는 종』, 23.
22) Petr Kropotkin,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Boston: Extending Horizons Books, 1919), 6.
23) Matt Ridley, 신좌섭 옮김, 『이타적 유전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7), 30.
24) 박만준, "사회생물학적 인간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총』 68, 2012. 4, 313.

www.kci.go.kr

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 2. 협력의 원리

마이클 토마셀로(M. Tomasello)는 협동심과 이타성은 어린아이부터 이미 유전적으로 누적되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이를 실천적으로 행동하며, 이러한 이타성과 협력은 소통을 통해서 구체화된다고 보았다.[25] 협력을 설명하는 원리로는 상호성의 원리와 집단선택설이 있다.

상호성의 원리는 직접 상호성과 간접 상호성으로 나뉜다. 직접 상호성(direct reciprocity)은 서로 주고받는 원칙으로서 "내가 너의 등을 긁어주면 너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의 등을 긁어줄 것"으로 기대하는 팃포탯(tit for tat, 맞대응)전략이 이에 해당된다. 직접 상호성의 실례는 흡혈박쥐들의 먹이 교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충분히 먹이를 섭취한 박쥐들은 먹이를 섭취하지 못한 동료를 위해 피를 토해 낸다. 이 때문에 굶어죽는 박쥐들이 거의 없다.[26] 출애굽기 21장의 "눈에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의 탈리온 법(Lex Talionis)에서 발견되는 원리이다.

팃포탯 전략은 우선 협력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는 상대의 대응방식(협력 또는 배신)에 따라 그대로 맞대응하는 인과응보(因果應報) 전략이다. 팃포탯 전략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최종 우승하였다.[27] 팃포탯 전략은 현실에서 효과적인 전략들은 계속 채택되어 사용되고, 효과 없는 전략들은 버려졌는데, 이러한 전략 게임을 통해 협력이 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팃포탯 전략이 최종적으로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상대방

25) Michael Tomasello, 유강은 옮김,『도덕의 기원』(서울: 이데아, 2018).
26) 같은 책, 54.
27) Robert Axelrod,『협력의 진화』, 11-12.

www.kci.go.kr

에게서 끌어내었기 때문이었다.

팃포탯 전략은 상대방을 패배시킴으로써 성공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협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성공을 거두었다. 팃포탯 전략은 처음부터 끝까지 상대방과 함께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유도함으로써 다른 어떤 전략 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여 우승할 수 있었다. 팃포탯 전략에 따르면 사람들의 이타적 행동은 상대방이 내게 줄 이타적 행동에 대한 기대, 이타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받게 될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당장은 배신하는 것이 이득이 되더라도 다음 게임에서는 배신으로 인해 이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협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을 상대방에게서 이끌어 내었던 것이다.

팃포탯 전략의 성공요인은 신사적이고, 보복적이고, 관대하고, 명료한 특성들이 조합된 결과였다. 신사적이기에 쓸데없는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고, 보복적이기에 상대가 배반을 시도할 때마다 가차 없이 응징함으로써 더 이상 배반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관대함을 통해 상호협력을 회복시켰으며,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명료함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이끌어내었다.

직접 상호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협력이 다음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이 지속되어야 한다. 지속적인 관계에서는 호혜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상호협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게임에 참여하는 양측 모두 결코 먼저 배반하지 않고 서로 협력을 선택하면 이러한 협력 관계가 지속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게 된다. 직접 상호성은 양자가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공동체가 소규모의 집단을 넘어 거대 도시화 될 경우 직접 상호성은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집단이나 도시 같은 환경에서는 간접 상호성이 요긴하게 작동된다.

www.kci.go.kr

간접 상호성(indirect reciprocity)은 당사자 간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호성으로서 우호적인 다자 연대를 통한 내리갚기(pay forward)라 할 수 있다. "내가 너의 등을 긁어주면 다른 누군가 나의 등을 긁어 줄 것이다"는 태도로 내가 먼저 선을 베풀면서 협력하는 것이다. "주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눅 6:38)", "주는 것이 받는 것 보다 복되다(행 20:35)"는 정신이다.

간접 상호성에 기반을 둔 경제적 교환이 촉진 되면 사회는 보다 거대하고 복잡하며 상호 연결된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 간접 상호성이 상호 연결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평판이 중요하다. 선한 일에 대한 소문이나 평판이 잘 작동하는 투명한 사회일수록 협력은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평판의 힘 덕분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이 없더라도 제3자를 돕게 되며, 별다른 의심 없이 선물 값을 낯선 이에게 먼저 지불하고, 다른 낯선 이가 그 물건을 배달해 주기를 기다린다. 비록 만나 본 적도 없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의 노고로 선물은 착오 없이 전달된다. 오늘 내가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면 내일 또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도 선을 베풀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방식으로 간접 상호성은 우리의 뇌, 기억을 담아두는 능력, 언어 및 도덕 원칙의 발달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28]

집단선택(group selection)은 어떤 집단에 이기적인 특성과 이타적인 특성을 갖는 사람의 비율에 따라 그 집단의 생존가능성이 결정되는데, 이때 이타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이 많을수록 그 집단의 성공가능성이 더 높다. 이타적 행위를 "개인에게는 희생 혹은 비용이 들지만, 다른 구성원들에게는 혜택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면 한 사회에 이타적인 개인이 많을수록 그 집단은 성공할 확률이 높으며, 생존을 위협하는 혹독한 환경

28) Martin Nowak & Roger Highfield,『초협력자』, 105.

www.kci.go.kr

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높다.[29]

개인 간의 경쟁(individual selection)에서는 이타적인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 간의 경쟁에서는 전세가 역전되어 이기적인 성향의 집단이 이타적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기적인 성향이 많은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면서 집단의 신뢰도가 떨어져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타적인 사람들이 많은 집단은 서로 간에 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충성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타인을 도우려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려는 사람이 많기에 집단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협력하는 사람들은 유유상종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하는 사람들은 이기적 성향의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된다. 집단선택의 과정이 협력과 호혜와 같은 이타적 행동을 촉진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신뢰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한 상호부조와 협력하는 분위기는 집단의 사회적 적응도를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이루게 하는 핵심요소가 된다. 마크 뷰캐넌은 이타적인 행동을 대규모 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적 원자의 핵심 특성이라고 보았다. 여러 시대에 걸쳐, 이타 행위를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을 압도했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다.[30]

---

29) 꿀벌의 침에는 화살촉처럼 미늘이 있어서 침입자에게 침을 쏘면 벌도 죽게 된다. 또한 사회성이 강한 곤충들은 생식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러한 특징은 개체에게는 좋지 못하지만 집단 전체를 위해서는 유익하기에 집단 선택은 이타주의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Leonard D. Katz, 김성동 옮김, 『윤리의 진화론적 기원』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7), 166.

30) Mark Buchanan, 김희봉 옮김, 『사회적 원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7), 176.

www.kci.go.kr

### 3. 협력의 미늘

액셀로드에 따르면, 무조건적으로 배신만 하는 비협력적인 세계에서도 협력은 싹틀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수많은 전략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호혜주의를 기초로 한 전략이 살아남은 비결이라고 보았다.[31] 아주 작게나마 협력을 바탕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는 무리가 있다면 이들로부터 협력이 퍼져나갈 수 있다. 일단 호혜주의를 원칙으로 협력이 정착되면 덜 협력적인 전략들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으며 협력의 톱니바퀴는 역회전을 방지하고 앞으로만 돌아가게 하는 미늘(ratchet)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협력은 이기적이고 비정한 세상에서도 서로 알아보고 협력하는 아주 작은 무리에 의해 시작될 수 있다. 일단 협력이 발생할 조건이 존재하기만 하면 협력은 싹터나고, 전혀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협력은 유지된다. 적절한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호혜주의에 입각한 협력이 생겨날 수 있다. 협력이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어떤 비협력적인 전략의 침범도 막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다.

## IV. 호혜의 윤리

### 1.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정부에 의한 규제 방법은 집행 및 행정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규제자의 기회주의적 행동 때문에 목표달성이 쉽지 않다.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고 규칙위반자에게 제재를 가할 경우 감시 비용, 집행 비용

31) Robert Axelrod,『협력의 진화』, 44.

www.kci.go.kr

등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만약 추가적인 행정 비용이 예상 외로 크다면 정부의 개입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32]

자율적인 시장의 조정 기능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점이 있지만 재산권 설정이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소유권자가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독과점으로 높은 가격을 고수한다면 이를 통제하고 제어할 장치가 없으며, 과다이용자를 감시하고 적발할 강제력이 없으며 수자원이나 어족 자원처럼 이동성을 지니고 있는 자원은 재산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은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공유재의 생산 및 공급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치적인 규율을 통해 스스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은 공유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유지한 지역 공동체들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이를 8가지 설계 원리(design principle)라고 불렀다.[33]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3. 규칙 변경의 가능성 4. 자발적인 감시 활동 5. 위반자에 대한 단계적으로 강화된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 메커니즘 7. 자치조직권에 대한 정부의 법적 인정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등이다.[34]

이들 지역 공동체들의 공통된 특징은 지역 시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유 자원에 대해 책임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서 공유지를 유지하

32) 강은숙 · 김종석,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12.

33) 오스트롬은 공유자원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역 공동체 9곳을 분석하였는데, 스위스 퇴르벨 지역의 고산지대 목초지 관리, 일본의 히라노, 나가이케, 야마노카 마을 3곳의 고산지대 목초지 관리, 스페인의 발렌시아, 무르시아, 오리우엘라, 알리칸데 4곳의 물 관리 체계, 필리핀 잔제라 지역의 물 관리 체계 등이다. Elinor Ostrom, 윤홍근 · 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울 :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26.

34) 같은 책, 404-405.

www.kci.go.kr

고 확장시킬 수 있었다. 오스트롬이 제시한 8가지 설계 원리 중 자발적인 감시 활동과 반복적 위반에 따른 단계적으로 강화된 제재 조치 원리는 자율적인 제도를 통해 공유지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감시에 저비용을 들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제재함으로써 개인의 비용-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규칙에 따를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여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협력적 분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공유된 규범은 감시와 제재의 비용을 줄여 주며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데 적극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 할 수 있다. 공유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이들 공동체들은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 가능한 호혜성과 신뢰라는 일반화된 규범을 공유한 특징을 지닌다. 호혜성과 신뢰의 구축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도 중요하게 기능하였다. 제도 공급 초기에 서로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집단이라는 인식은 새로운 제도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했고, 서로 간에 감시를 용이하게 만들어 조건부 협력이 발생할 수 있게 했으며 감시 및 집행 비용 또한 적게 들어 새로운 제도가 잘 정착되고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다.

공공 신탁(public trust) 원칙은 물 같은 공유 자원들이 사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소유되기 보다는 대중 전체의 편익을 위해 국가에서 맡는 법률적 원리인데, 이는 공유지 보호를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뉴멕시코의 아세키아(acequias) 샘이나 하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35] 아세키아라는 말은 '물지게꾼' 혹은 '갈증을 푸는 것'을 뜻하는 아라비아어에서 기원하였는데, 공동 용수지로부터 도랑의 연결망을 통해 물을 공급하는 관개 시스템이다. 이러한 뉴멕시코의 지역사회에 기초한 관개 시스템은 수세대에 걸쳐 지속되어 온 전통이며, 갓 도착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35) Jay Walljasper,『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139.

www.kci.go.kr

아세키아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 2. 호혜와 선물의 경제

트리버스(R. L. Trivers)는 호혜적 이타주의를 주장하였는데, 동물들이 서로 돕는 이유는 그들이 직접적인 경쟁을 통해 얻는 단기적인 이득 보다는 큰 가치를 갖는 장기적인 집단의 이득을 획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36] 호혜성의 원칙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으로서 대가 형식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습에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진정으로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고 규범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긴다.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포틀래치(potlach), 남태평양의 쿨라(kula), 뉴질랜드의 하우(hau)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지적 연구를 통해 선물교환은 단순히 물건의 교환을 넘어 부와 권력, 위세와 명예를 드러내는 삶의 모든 측면과 관계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결속을 강화한다고 주장하였다.[37] 모스는 증여 및 교환 체계는 자발적인 의무임과 동시에 호혜와 교환의 경제에 기반하고 있음을 포착하였다.

호혜성은 단순한 규범의 차원이 아니라, 등가물을 교환하는 체계 속에 내재된 구조에 의해 작동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라는 것이다. 상품 거래와 선물(gift) 거래의 차이점은 호혜성을 수반하느냐의 여부이다. 선물 또는 증여는 주기와 받기, 그리고 답례라는 삼중의 의무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물건의 교환을 넘어 명예와 관련된다. 많이 베푼 사람이 가

36) Leonard D. Katz, 김성동 옮김, 『윤리의 진화론적 기원』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7), 18.

37) 도움이나 선물을 받으면 반드시 답례를 하는 호혜의 의무는 오스트레일리아 북동쪽 멜라네시아 원주민, 알래스카 해안의 하이다족, 브리티시컬럼비아 해안의 콰키우틀족 등지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경숙, 『산타와 그 적들』 (서울: 굿모닝미디어, 2013), 7.

www.kci.go.kr

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누군가 자신에게 베풀면 그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베푸는 것이 당연했고, 많이 베푸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의 당연한 의무였다.

선물을 주고받는 관습인 포틀래치(potlach)는 치누크족의 과시적 소비 의례로서, '식사를 제공하다(nourrir)' 또는 '소비하다(consommer)'라는 뜻이다.[38] 치누크족은 증여에 따라 위계의 서열이 확립된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준다는 것은 자신이 수혜자보다 더 우월하며 더 위대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또한 누군가의 것을 받는다는 행위는 증여자의 위세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39] 따라서 답례하지 않거나 더 많이 답례하지 않으면서 받는 것은 손님이나 하인으로 종속되는 것이며, 더 낮은 지위로 전락하는 것이다.

증여는 갈등 관계로 번질 수 있는 경쟁과 다툼을 내기와 후함의 형태로 전환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응집을 효과적으로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들은 선물교환을 통해 주고받는 물건에는 '하우(hau)'라고 하는 영적인 힘이 내재해 있다고 믿는다.[40] 폴리네시아 마오리족 단어인 '하우'는 라틴어의 'spiritus'와 마찬가지로 바람과 영혼을 의미하며, 무생물 · 식물의 영과 힘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우는 증여자의 인격에 배어있는 생명력으로서 증여자의 소유물과 함께 전이 된다. 증여 행위를 통해 영적인 힘이 사물로 이전되면서 인격의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41]

모스의 증여론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재화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선과 행복을 위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선과 행복은 노동을 통한 부의 축적과 재분배, 상호 존경과 관대함 속에서 확산되기 때

38) Marcel Mauss, 류정아 옮김, 『증여론』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26.
39) 류정아, 『마르셀 모스, 증여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4.
40) Marcel Mauss, 『증여론』, 33.
41) 박정호,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문화와 사회』 7, 2009년 11월, 36.

www.kci.go.kr

문이다. 부르디외는 증여와 답례 사이의 시간적 지연은 증여자와 수혜자 사이의 신용이라는 새로운 교환 조건을 창출하기에 선물교환은 상호신뢰의 경제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보았다.[42] 리꾀르 또한 증여를 타자의 인정을 위한 행위로 보면서 증여가 지닌 미덕을 상호성에 기반을 둔 사회적인 인정, 즉 증여를 통한 감사와 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라고 보았다.[43] 증여 행위로 파생되는 호혜성이나 신뢰, 상호 인정은 공동체의 연대성을 강화시키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데리다는 답례의 의무를 지키는 것을 전제하기에 모스의 증여론을 교환으로 변질된 증여, 경제에 포획된 증여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44] 데리다에게 있어 진정한 증여란 되돌려 받음이 없는 증여이다. 모든 보상이나 보답의 논리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비등가적이고, 무원인적이어야 하며, 이는 은폐된 교환과의 근본적인 단절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증여는 모든 증여에 대한 기대와 계산으로부터 해방이며, 교환의 순환구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기에 증여자는 증여를 하면서 어떤 의도나 계산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호혜와 선물의 경제에 접근할 때, 모스의 증여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인정이라는 보상이나 보답을 기대하는 등가적 교환을 넘어서 이미 받은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기에 함께 나누는 무조건적인 은혜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42) 부르디외, *The Logic of Practice*, 1990, 김성례, "증여론과 증여의 윤리," 『비교문화연구』 11, 2005년 1월, 173 재인용.

43) 손영창, "데리다의 증여이론," 『대동철학』 76, 2016년 9월, 125.

44) 같은 책, 112.

www.kci.go.kr

### 3. 공유가치창출

호혜의 정신을 기업과 연관시키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 창출로 연결된다. 기업은 경영활동으로 발생한 이윤과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ive Social Responsibility)을 감당하였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례는 한국의 유한양행이 있다. 유한양행은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는 창립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유익한 의약품을 도입하였고, 1933년 진통 소염제 '안티푸라민'을 개발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넘어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로 나아가야 한다. 공유가치창출은 마이클 포터가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를 통해 제시한 개념으로서, 기업의 경영활동은 해당 기업의 문제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영리를 추구하면서도 공유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이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영리활동을 통해 얻을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 공동체가 함께 얻게 될 공적 가치를 함께 창출하는 방법을 동시에 고민하고 실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업이 공유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시장에 대한 개념을 재인식하여 가치사슬의 변혁을 통하여 기업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건강한 사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경제주체들 간의 동반성장과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45]

45) 공유가치창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첫째 방식은 이윤 창출과 사회적책임 이행을 동시에 달성하는 신규사업을 창조적으로 개발하여 집행함으로써 이익을 내면서 사회의 각종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CSV(Project-Based CSV)이다. 두 번째 방식은 기업이 기존사업을 평가할 때, 투자회수기간, 투자수익률, 내부수익률

www.kci.go.kr

기업이 공유가치를 성공적으로 창출한 실례는 올람과 네슬레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올람 인터내셔날은 캐슈너트 생산자로 이전에는 아프리카에서 생산한 너트를 생산성이 높은 아시아의 공장으로 운송하여 작업 한 후, 시장으로 한 번 더 운송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는 각 생산 지역에 너트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을 함께 운영함으로 작업비와 운송비는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약 25%를 절감하였다. 또한 지역 내 농장들과 협력하여 1만 7천 여 명을 고용하고, 그 외 간접적인 고용창출 효과도 일으켜 지역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46]

네슬레는 인류의 건강을 핵심 경영방침으로 정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회사의 구성원 모두를 위한 웰빙에 중점을 두면서 공유가치창출을 위해 힘썼다. 네슬레만의 제품의 신뢰도와 재료의 품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원활한 관개시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원료수입 보다는 자국의 원자재를 이용한 지역 내 생산을 통해 수송비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켰다.

또한 네슬레의 농업지원 프로젝트는 농업전문가 및 경제전문가 외에 약 5천 명의 현장기술자 및 농업들로 구성되어 21개국에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전 세계 10여 만 명의 농업인들에게 제품관리, 안전보장 시스템 등과 함께 일련의 훈련, 재정지원, 가격책정 등의 편의를 실시하면서 유통업, 정부, 비영리기관 등의 파트너들과도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47]

---

과 같은 경제적 기준과 일자리창출, 사회문화 창달, 환경보존과 같은 사회적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는 프로세스 기반 CSV(Process-Based CSV)이다. 조동성 외, 『자본주의 5.0』 (서울: Weekly BIZ, 2017), 56.

46) 박홍수 외, 『공유가치창출전략』, (서울: 박영사, 2016), 26.

47) 같은 책, 34-35.

www.kci.go.kr

## V. 협력과 호혜의 경제 공동체

토머스 프리드먼(T. Friedman)은 개방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48] 신뢰가 없으면 열린사회도 없고, 평등한 세계도 있을 수 없다. 신뢰는 차별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없애고 갈등을 극복하고 평화를 회복하는데 중요하다. 마틴 노왁은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초협력자들(SuperCooperators)을 필요로 하며 오늘날 인류는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의 창조적인 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49]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뮤니타스(communitas)는 '함께'라는 뜻의 'cum'과 '의무, 책임, 선물' 등을 뜻하는 'munus'의 조합인데, 공동체란 '의무나 책임, 선물 등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한다.[50] 파피아뉴기니의 오우(Au)족과 구노우(Gnau)족이 최후통첩 게임에서 파이의 절반 이상을 상대의 몫으로 제안하였다.[51] 이들이 자신들의 이익 보다 상대를 더 많이 배려하는 이타적 성향을 지니게 된 배경에는 일상생활에서 선물을 주는 관행이 널리 확산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제란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약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하는 것이다. 경제 본래의 진정한 가치를 구현하는 경제운동은 영리가 주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상생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 경제운동이다. 이러한 협동의 조직체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를 추구하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특징을 지닌다.

48) 오영호,『신뢰경제의 귀환』, 188.

49) Martin Nowak & Roger Highfield,『초협력자』, 23.

50) Esposito 2010, 5. 정헌목, "증여의 네 번째 의무,"『비교문화연구』제24권 2호 (2018), 494 재인용.

51) 보울스 & 긴티스,『협력하는 종』, 97.

www.kci.go.kr

호혜와 신뢰에 기반을 둔 선물의 경제(Gift Economy)는 등가 교환과 화폐 경제가 지배하는 시장 경제와는 달리 선물이나 증여 등과 같은 부등가 교환과 비화폐경제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면서 협력을 증진시킨다.

협력과 호혜에 기반을 둔 사회적 경제운동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이라는 자의식에서 시작된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최선을 다하여 협력의 성과를 내고, 함께 협력하여 거둔 성과를 공유하며 기쁨으로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하나님 나라(롬 14:17)의 이상이다.

협동조합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형성되었으며, 기독교인들은 초창기 협동조합의 태동과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협동조합은 경쟁과 영리추구에서 벗어나 협력을 통해 상생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을 근간으로 사회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득권을 가진 1%가 아니라 99%를 위한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쓴다.[52] 그런 점에서 협동조합은 사랑과 정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는 성서적 가치관을 잘 드러내며 교회의 대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구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협동의 길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자유롭고 질서정연한 변천을 도모하게 한다.[53] 협동조합이 지닌 공동체적 성격은 신뢰, 호혜, 연대, 충성과 같은 사회 심리적 구성요소를 갖는다. 협동조합은 구성원 서로 간에 선의와 연대성을 증진하기에 샬롬의 공동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이 된다.[54] 협동조합의 시스템은 닫힌 조직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게 열려

52) 이종원, "기독교협동조합의 기능성," 『신학과사회』 제30권 2호 (2016), 12.

53) Andrew McLeod, 홍병룡 옮김,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서울: 아바서원, 2013), 134.

www.kci.go.kr

있으며, 타인의 희생을 대가로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모두가 함께 협력함으로써 사랑과 정의의 경제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한다.

우분투(Ubuntu)란 남아프리카 반투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네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뜻으로, 나눔, 공동체, 관용의 철학을 반영하는 전통적인 아프리카식 표현이다.[55] 이러한 우툰부의 정신을 현실에서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경제운동이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운동은 약자들까지도 함께 품고 함께 협력에 이끌어 삶의 기반을 굳건하게 만들어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킨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의 사회서비스 생산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좋은 모델이 된다.[56] 사회적 협동조합은 호혜와 협력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념은 기독교가 구현하려는 사회정의와 평화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교회가 다른 이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이들이 인간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구현하는 길이 되며, 교회의 대사회적 책임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길이 된다.

기업(company)이라는 말의 어원은 함께(com) 빵을 나누다(pany)는 의미이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소유를 함께 공유함으로 이상적인 공동체의 이념을 구현하였다. 함께 빵을 나누는 집단이 조합원일 때는 협동조합이고, 사회일 때는 사회적기업이 된다. 형태가 어떠하든지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고 협력과 호혜를 증진시키면 그 조직은 사회에 선물

54) 이종원, "성서적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운동,"『신학과사회』제31권 4호 (2017), 95.
55) Jay Walljasper,『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399.
56) 이종원,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협동조합,"『기독교사회윤리』제37집 (2017), 199.

www.kci.go.kr

같은 존재가 된다. 선물과 호혜에 기초한 경제 운동은 적자생존의 냉엄한 비인간화에 대항하며 인간을 소외시키는 상품경제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상호연대성과 도덕적 감수성을 고양시키는 대안적 경제운동이라 할 수 있다.

## VI. 나가는 말 - 호혜와 협력, 그리고 우분투 정신

위에서 이기적 본성을 합리화하는 유전자결정론이 지닌 문제점과 공유지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를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인클로저 운동이 확산되면서 공유지는 파괴되고 공동체 정신도 함께 붕괴되면서 생태균형도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인간 뿐 아니라 모든 생태공동체가 함께 질 수밖에 없음을 살펴보았다.

이기적 본성에 따르면 당장 편익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한 비극적인 결과는 개인 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될 때 호혜와 협력의 방식이 더욱 효율적이며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방식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시장 패러다임이 이끄는 방식에 따라 남들보다 경쟁에서 앞서가려고 힘쓰기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됨을 논증하여 보았다.

신자유주의로 인해 경쟁이 심해지고 삶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는 현실에서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새로운 경제 건설 운동이 절실하다. 경쟁에서 이긴 자가 모두 독식하는 룰을 거부하고, 모두가 함께 '공동의 풍요로움'을 위해 둘러앉는 선물과 호혜의 경제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 협력은 구성원들의 헌신과 이타성, 자기희생이 뒤따를 때 더욱 확산될 수 있다. 또한 협력은 이기적이고 비정한 세상에서도 서로 협력하는 작은 움직임으로 시작될 수 있다. 일단 협력이 생겨나면 전혀

www.kci.go.kr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협력과 호혜는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확산될 수 있다.

협력과 호혜의 경제는 협력과 호혜의 정신을 기반으로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열정과 개척정신을 가지고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도모하고 사회적 약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창조적인 경제운동이다. 서로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경제, 공유가치를 실현하는 경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교회는 협력과 호혜를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며 효과적인 선교의 매개체로 삼을 필요가 있다.

www.kci.go.kr

# 참고문헌

강은숙 · 김종석.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김성례. “증여론과 증여의 윤리.” 『비교문화연구』 제11집 (2005). 153-186.

류정아. 『마르셀 모스, 증여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박만준. “사회생물학적 인간학에 대한 비판적 고찰.” 『철학논총』 제68집 (2012). 295-321.

박정호. “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문화와 사회』 제7집 (2009). 7-49.

박흥수 외. 『공유가치창출전략』. 서울: 박영사, 2016.

손영창. “데리다의 증여이론.” 『대동철학』 제76집 (2016). 104-132.

신동의.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반론 – 데니스 노블의 ‘생명의 음악’을 중심으로.” 『윤리교육연구』 제25집 (2011.8). 149-168.

오영호. 『신뢰경제의 귀환』. 서울: 메디치, 2013.

이경숙. 『산타와 그 적들』. 서울: 굿모닝미디어, 2013.

이종원. “기독교협동조합의 기능성.” 『신학과사회』 제30권 2호 (2016). 9-42.

이종원. “성서적 관점에서 본 협동조합운동.” 『신학과사회』 제31권 4호(2017). 77-106.

이종원. “기독교 윤리적 관점에서 본 사회적 협동조합.” 『기독교사회윤리』 제37집 (2017). 179-210.

전중환. “진화생물학의 은유 — ‘이기적인 유전자’와 ‘스팬드럴’을 중심으로.” 『대동철학』 제54집 (2011). 117-136.

정헌목. “증여의 네 번째 의무.” 『비교문화연구』 제24권 2호 (2018). 471-501.

조동성 외. 『자본주의 5.0』. 서울: Weekly BIZ, 2017.

Axelrod, Robert. 이경식 옮김. 『협력의 진화』. 서울: 시스테마, 2012.

Bauer, Joachim. 이미옥 옮김.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원칙』. 서울: 에코리브르, 2007

Bazerman, Max H. & Tenbrunsel, Ann E. 김영욱 · 김희라 옮김. 『이기적 윤리』.

www.kci.go.kr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Boiler, David. 배수현 옮김.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서울: 갈무리, 2015.
Bowles, Samuel & Gintis, Herbert, 최정규 옮김. 『협력하는 종』. 서울: 한국경제신문, 2016.
Buchanan, Mark. 김희봉 옮김. 『사회적 원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7.
Dawkins, Richard. 홍영남 · 이상임 옮김.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2011.
Katz, Leonard D. 김성동 옮김. 『윤리의 진화론적 기원』. 서울: 철학과현실사, 2007.
McLeod, Andrew. 홍병룡 옮김. 『협동조합, 성경의 눈으로 보다』. 서울: 아바서원, 2013.
Kropotkin, Petr. *Mutual Aid: A Factor of Evolution*, Boston: Extending Horizons Books, 1919.
Mauss, Marcel. 류정아 옮김. 『증여론』. 서울: 지식을만드는지식, 2011.
Nowak, Martin & Highfield, Roger. 허준석 옮김. 『초협력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2.
Ostrom, Elinor. 윤홍근 · 안도경 옮김.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울 :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Polanyi, Karl. 홍기빈 옮김. 『거대한 전환』. 서울: 길, 2009.
Ridley, Matt. 신좌섭 옮김. 『이타적 유전자』.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7
Singer, Peter. 김성한 옮김. 『사회생물학과 윤리』. 고양: 연암서가, 2014
Singer, Peter. 이재경 옮김. 『효율적 이타주의자』. 파주: 21세기북스, 2016
Singer, Peter & Elster, Jon. 유강은 옮김. 『기빙웰』. 서울: 이매진, 2017.
Smith, Adam. 최호진 · 정해동 옮김, 『국부론』. 서울: 범우사, 1993.
Tomasello, Michael. 유강은 옮김. 『도덕의 기원』. 서울: 이데아, 2018.
Walljasper, Jay, 박현주 옮김. 『우리가 공유하는 모든 것』. 서울: 검둥소, 2013.
Wilson, Edward O. 이병훈 · 박시룡 옮김. 『사회생물학』. 서울: 민음사, 1992.

논문투고일: 2019년 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9년 7월 16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2일

www.kci.go.kr

## • 국 문 초 록 •

본 소고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만연된 이기주의적 현실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협력과 호혜에 기반을 둔 이타주의적 경제운동의 이론적 토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기주의를 합리화하는 유전자결정론과 인클로저 운동을 비판하고 공유지의 비극과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으로서 협력과 호혜가 지닌 도덕적 가치의 탁월성을 환기시키고자 한다. 협력과 호혜의 윤리가 부각되는 이유는 현 시대가 직면한 위기상황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공유지의 비극으로 비유되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자원 고갈이나 군비경쟁으로 인한 핵 확산, 난민 문제 등과 같은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독립적이고 이기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조정하기가 쉽지 않고, 집단적 이기주의가 작동하게 되면 무정부상태가 되거나 죄수의 딜레마로 빠져들어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과 같은 공존과 협력, 호혜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사회적 경제 운동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운동들은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타적 성향을 강화시키고 장려하는 경제운동이며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열정과 개척정신에 기반을 둔 실천적인 경제 운동이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사회적 경제운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협력, 호혜, 공유재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인클로저, 공유가치창출

www.kci.go.kr